

# 2026 스토리텔링 공모전 1차 심사 통과작

제 목	기울어진 시선이 만든 가장 곤은 숫자, 김 선임의 정산법
<p>1. 첫인상이라는 이름의 높고 차가운 문턱</p> <p>우리 회사 회계팀 김 선임을 처음 대면하는 사람들은 아주 잠깐, 찰나의 당혹감을 비추곤 한다. 그녀는 한쪽 눈이 불편하다. 겉으로 보기에다 시선의 방향이 조금 다르고 눈동자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나 역시 처음 입사했을 때, 그녀와 눈을 맞추며 인사하는 법을 몰라 허둥댔던 기억이 선명하다.</p> <p>어디를 바라보아야 할지, 내 시선이 혹시 그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애써 모니터만 쳐다봤던 그 어색한 공기. 인사를 나누면서도 정작 상대의 눈을 피하는 나의 비겁한 배려가 오히려 그녀에게는 더 높은 벽이었을지도 모른다. 당시 팀원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러운 우려가 안개처럼 깔려 있었다. 회계라는 직무는 영수증에 찍힌 흐릿한 글자 하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의 소수점 하나조차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른바 숫자와의 소리 없는 전쟁이기 때문이다.</p> <p>‘한쪽 시력만으로 그 방대한 숫자의 파도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p> <p>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배려라는 가면을 쓴 의구심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어쩌면 우리는 그녀의 능력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일하며 마주해야 할지도 모를 미지의 불편함을 미리 경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편견의 문턱은 김 선임이 보여준 압도적인 실력 앞에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허물어지기 시작했다.</p> <p>2. 외면을 압도하는 내면의 치밀함과 12원의 기적</p> <p>김 선임은 그 모든 의구심을 실력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잠재웠다. 그녀의 책상에는 남들보다 조금 더 큰 모니터와 특수 조명이 놓여 있지만, 정작 그녀가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은 누구보다 군더더기가 없다. 한쪽 눈의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만의 철저한 검수 루틴을 설계했다. 모든 데이터는 반드시 세 번의 교차 검증을 거치고, 엑셀 수식은 단 0.1%의 오류도 허용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구조화한다. 남들이 눈으로 대충 훑고 지나갈 때, 김 선임은 마우스 커서를 한 칸 한 칸 옮기며 숫자의 숨소리까지 체크한다.</p> <p>그녀의 진면목이 드러난 결정적 사건은 작년 연말 결산 때였다. 외부 회계 감사 법인에서조차 찾아내지 못했던 12원의 오차가 발생했다. 수천억 단위의 매출이 오가는 기업에서 12원은 사실상 ‘무시해도 좋은’ 수치였다. 밤샘 작업에 지친 팀원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떨구며 "그냥 잡손실 처리하자", "이 정도는 오차 범위 안이다"라며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김 선임은 조용히 비뚤어진 안경을 고쳐 쓰며 다시 화면 속 숫자의 바다로 가라앉았다.</p> <p>그녀는 모두가 잠든 새벽까지 묵묵히 지난 3년 치 소모품 내역과 이월 전표를 하나하나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시스템 오류로 누락된 단 한 건의 전표를 찾아냈을 때, 사무실에는 적막을 깨는 가벼운 탄성이 터져 나왔다.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12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불편한 눈</p>	

너머에 자리 잡고 있는 무결점의 정신, 그리고 자신의 일을 대하는 숭고한 태도였다. 그녀에게 장애는 업무의 제약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검증하고 더 깊이 몰입하게 만드는 성실함의 뿌리였다.

### 3. 장애인 고용, 시혜가 아닌 시스템의 혁신

김 선임과 함께 일하며 우리 회계팀의 풍경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처음에는 그녀의 업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했던 사소한 규칙들이 시간이 흐르며 팀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골든 스탠다드가 되었다.

예를 들어, 모든 서류는 반드시 정해진 위치와 각도에 배치하는 규칙이 생겼다. 파일명은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명명 규칙을 통일했고, 회의 자료는 시각적 가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폰트 크기와 대비를 조정했다. 처음에는 김 선임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이 규칙들 덕분에 다른 팀원들의 업무 피로도 역시 급격히 줄어들었다. 불필요하게 서류를 찾는 시간이 사라졌고, 시각적 피로감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단순 실수도 급감했다.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배려가 결국은 비장애인 동료들의 업무 환경까지 개선하는 강력한 시스템이 된 것이다. 우리는 이제 깨닫는다. 장애인 고용은 단순히 빈자리를 하나 내어주는 시혜적 행위가 아니다. 한 사람의 고유한 특성을 수용하기 위해 조직이 유연해지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낡고 비효율적인 프로세스가 정교하게 다듬어지는 '조직 혁신'의 시작이다.

또한, 김 선임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통의 본질을 가르쳐주었다. 걸모습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혹은 시선이 정면을 향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의 방향까지 엿갈리는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 팀원들은 그녀와 대화할 때 어디를 쳐다보아야 할지 고민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가 아니라, 그녀가 전하는 명확한 데이터와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진심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 4. 한 개인의 자립이 일궈낸 가족의 찬란한 일상

언젠가 팀 회식 자리에서 김 선임이 조심스럽게 지나온 날들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취업 준비 시절, 면접장에 들어설 때마다 그녀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질문의 내용이 아니었다. 면접관들의 시선이 자신의 전문성이나 역량이 아닌, 불편한 눈에 머물다 결국 동정 섞인 거절로 이어지는 것을 느낄 때 그녀는 세상의 차가운 벽을 실감했다고 한다.

그녀의 부모님 또한 딸이 사회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편견의 시선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할까 봐 밤잠을 설친 날이 많았다고 하셨다.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눈 때문에 일을 못 한다는 소리를 듣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아야 했던 부모님의 마음은 오죽했을까.

하지만 지금 그녀의 부모님은 회계팀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한 딸을 보며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하신다. 명절이면 팀원들에게 '우리 딸을 편견 없이 동료로 받아주어 정말 고맙다'며 정성

어린 손편지와 간식을 보내주시는 그 마음을 접할 때면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진다.

장애인 고용은 한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넘어, 그를 사랑하는 가족 전체에게 사회에 대한 신뢰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선물하는 일이다. 한 명의 장애인이 당연한 직업인으로 일어설 때, 그 가족의 일상은 비로소 불안을 떨치고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한다. 우리는 김 선임을 보며 고용이 가진 가장 위대한 사회적 가치를 매일 체감하고 있다.

##### 5. 편견의 프레임을 깨고 함께 걷는 미래

나는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 업무에 몰입하고 있는 김 선임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그곳에는 한쪽 눈의 불편함을 딛고 일궈낸 수많은 성과물과, 동료들의 깊은 신뢰가 묻어나는 서류 뭉치들이 단정하게 쌓여 있다.

장애인 고용은 결코 거창한 구호나 거대한 예산이 필요한 일이 아니다. 김 선임처럼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인재가 단지 신체적 특징 때문에 기회조차 박탈당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가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주 조금의 환경적 배려를 더해주는 것, 그것이 전부다.

전국의 수많은 채용 담당자와 경영진에게 감히 전하고 싶다. 당신이 마주한 구직자의 걸모습에 매몰되어 그 뒤에 숨겨진 보석 같은 역량을 놓치지 말라고. 남들보다 조금 더 불편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이 갈고닦은 절실함과 치밀함은, 오히려 조직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고 말이다.

오늘도 김 선임은 특유의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하루의 정산 업무를 마무리한다. 그녀의 시선은 비록 물리적으로 정면을 향하지 않을지라도, 그녀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회사의 미래를 비추고 있다.

불편했던 것은 그녀의 눈이 아니라, 그녀를 편견의 프레임 속에 가두고 한계를 규정하려 했던 우리의 비뚤어진 시선이었다. 그 시선을 바로잡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장애라는 단어 대신 동료라는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일하는 내일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숫자를 정산할 수 있을 것이다.